

천정부지 솟는 물가·환율에 서민 식탁 '빨간불'

김밥·삼겹살 등 1년새 7%대까지 상승...가계 부담↑ 물가 압박 장기화 우려...정부 긴급 대응 조치 나서

#1 30대 회사원 김지훈씨는 최근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근처 분식집을 찾았으나 계산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이면 7000~8000원에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배 가량의 비용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계산할 때 가격을 잘못 본 줄 알고 재차 확인했다. 부담 없이 찾던 김밥, 라면마저도 가격이 오

르는 것에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2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모임을 한 40대 최민성씨에게 값싸고 푸짐했던 삼겹살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외식 메뉴로 바뀌었다. 1인분에 1만5000원대였던 가격이 어느새 1만90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4명 기준으로 식사비를 포함해 기타 비용까지 10만원 안팎이었던 것이 올해는 15만~20만원까지 이르렀다.

외식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며 송년회 시즌에 지출이 늘어난 직장인들과 서민 식탁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고환율과 수입산 식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연말 장보기와 외식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김밥·자장면·칼국수·냉면·삼겹살·삼계탕·비빔밥·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1~7%대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삼겹살이다.

부담 없이 찾는 회식의 단골 메뉴인 삼겹살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1만 5000원에서 올해 11월 1만6111원으로 7.4% 상승했다.

또 대표적으로 부담 없이 찾는 김밥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3460원으로 지난해 11월(3340원)보다 3.5% 올랐다. 자장면의 평균 가격은 7100원으로 지난해 6800원보다 4.4% 상승했다. 또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백반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8200원

으로 지난해 8500원보다 3.6%, 냉면(9900원→1만300원) 4.0% 오르는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환율 상승, 인건비 부담, 임대료·공공요금 비용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대표 서민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담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밀가루, 식용유, 육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자재 가격이 환율 영향으로 들쭉이면서 식당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

어서다. 한 식당 업주는 "식자재 납품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손님 눈치가 보여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며 "환율이 오르면 전기료, 가스비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 사방이 벽인 느낌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별로 가격·수급 등을 점검하며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윤용성 기자 yoo1404@gwangnam.co.kr

김대원 롯데쇼핑 광주점장, 국무총리 표창

한국유통대상서 영예...프로모션 다채 상권 활성화 기여

제30회 한국유통대상에서 김대원 롯데쇼핑 광주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대원



김철한



김정희

또 임철한 ㈜창역 대표, 김정희 ㈜그린약품 대표가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김대원 롯데쇼핑 광주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임철한 ㈜창역 대표, 김정희 ㈜그린약품 대표가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유통대상은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간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대원 롯데쇼핑 광주점장은 지난 20여년간 유통트렌드를 선도한 럭셔리·K패션 상품기획 전문가로 백화점 성장과 고객경험 혁신을 이끌었으며,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에도 크게 기여해 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올해 광주점장 취임 후 지역 최초 이케아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지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으며 끊임없는 지역

중소상공인·로컬 브랜드 팝업 스토어 운영 등으로 성장 지원에 앞장섰다.

또 다양한 프로모션 및 기획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도 공헌한 점 등이 높게 평가로 이어졌다.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임철한 ㈜창역 대표이사는 34년 역사의 떡 방앗간을 지난 25년간 떡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전통 떡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발전시키고 건강한 식문화 선도해 온 점 등이 주효했다.

김정희 ㈜그린약품 대표는 지난 40년간 진단·의약 발전과 신약 도입, 상생 및 사회공헌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약·개량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했고, 약품 및 진단시약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재고 관리 도입 등으로 제품 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지역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홈플러스 '이해봉 짬뽕라면 건면' 출시 홈플러스는 신제품 '이해봉 짬뽕라면 건면'을 출시해 PB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흥행을 이어간다.

농어촌공사, 생성형 AI로 업무 다각화 대응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과 효율적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핵심 업무 전반에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규, 법령, 업무 지침, 감사 사례 등 다양한 문서를 학습시켜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 알고 싶더라는 질문을 던지면 AI가 관련 문서를 찾아 답변

해주는 식이다.

문자 기반 답변 뿐만 아니라 표, 차트 등 다양한 형태의 답변도 제공한다.

아울러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답하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증거기술을 적용한다.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줄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AI Agent)'도 도입한다. AI 비서는 문서 작성과 요약, 데이터 분석과 자료 검색, 보고서·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주=주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로또 1등 18명...당첨금 각 16억6100만원

제120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6, 28, 30, 3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1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2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61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91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3835명이다.

연합뉴스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